

# 大學生과速讀法

所長 韓 昌 榮

## I 머릿말

현대를 3S의 시대라고 하거니와 그것은 speed, sport, 그리고 screen의 頭文字를 따서 만든 用語인 것이다. 그중 speed를 생각해 보면, 확실히 현대는 빨리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現代人의 발걸음부터가 빠르다. 농어촌에서 유유자적하게 걷는 사람보다 현대의 도시인의 걸음은 쏜살처럼 달아나는 것 같다. 한편 요즘은 새마을운동으로 농어촌인의 걸음도 전에 비하여 빨라진 느낌이다.

현대가 빨리 돌아가는 것은 비단 걸음뿐만이 아니다. 현대를 달리 표현하여 3M라고 하거니와 그것은 Mass, machine, 그리고 money의 頭文字로 만들어진 말이다. 그리고 mass에는 大量生産, 大量消費, 大量傳達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 모두 speed와 관련이 없는 것이 없어 보인다.

· 大量生産의 경우에는 항공 상품과 관련지어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것은 서적과도 관련지어 생각해볼만 하다. 현대를 情報化時代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니와 현대는 情報物의 洪水時代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대인은 종이의 時代에 살고 있으며 『맥루한』의 말을 빌리면 文字文化의 高度로 發達한 時代에 살고 있다. 현대인은 신문을 읽어야 하며 잡지를 들여다 봐야 하고 자기와 관계된 책을 讀破하여야 하며 교양서적을 훑어봐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신문, 잡지, 서적등은 전에 비하면 文字 그대로 산땀처럼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날이 갈수록 加速化되어가는 경향이 있는 듯 하다.

國際社會만 하더라도 어제와 오늘의 狀況이 雲泥之差처럼 激變하고 있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며 學問의 發展 역시 그 템포가 매우 빨라서 그 經過는 走馬燈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다. 이런 狀況下에서 情報를 재빨리 그때 그때에 消化시키지 못한다면 항상 落伍兵의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走馬看山格으로 빨리 지나가는 情報化 時代에 대처할 독서법은 다름아닌 速讀法인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速讀法이라 하더라도 옛날의 概念과 現代의 그것은 다르다고 보아진다. 옛날의 그것은 바로 多讀과 直結되어 있었다고 보아진다. 애오라지 速讀法을 利用해서 많은 서

적을 읽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의 그것은 多讀이란 次元以外에 現代를 能動的으로 파악하고 그것에 適應할 줄 아는 슬기를 터득하는데 있는 것으로 안다.

옛날 사람들은 多讀으로 男兒必讀五車書라 하여 오거서(五車書)만큼의 책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옛사람들의 생각에는 『언제라도』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일생중 언제라도 오거서만큼의 책을 읽기만 하면 된다는 持論인 것 같다. 그러나 현대인에게는 그 『언제라도』라는 조건이 통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Speed의 시대에는 그러한 안이한 생각을 갖고서 독서를 한다면 항상 時代に 뒤떨어질 수 밖에 없다. 같은 오거서의 分量의 서적이라 할지라도 『때에 따라』 읽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여기에 현대인의 速讀法의 眞意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아진다.

本稿에서는 大學生과 速讀法과의 관계를 論하려 한다. 그러므로 速讀法 자체의 깊은 기술적인 面은 紙面關係도 고려하여 大略을 다루고 끝으로 大學生이 速讀을 하지 않으면 안 될 必要性을 살펴보고자 한다.

## Ⅱ 速 讀 法

讀書을 하는데 있어서는 두 가지 側面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즉 그것은 눈과 페이지와의 관계(Eye-Page Relationship)이며 또 하나는 눈과 마음과의 관계(Eye-Mind Relationship)이다.

여기서는 이상 두가지 관계들을 나누어서 살펴 보고자 한다. 서술상 후자의 관계부터 먼저 살펴보려 한다.

### A. 눈과 마음과의 관계

이 눈과 마음과의 관계에는 먼저 읽어두기(Pre-reading), 훑어 읽기(Skimning) 집중독서(Concentration), 비판적으로 읽기(Critical Reading) 그리고 노트 하기(Note-taking)등이 있다. 이런 것들을 分說하면 다음과 같다.

#### 가. 먼저 읽어두기(Pre-reading)

빨리 읽기 위하여서는 먼저 읽고자 하는 책이나 記事의 內容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읽고자 하는 책의 內容을 읽기 이전 段階로서 Mortimer J. Adler의 이른바 外部의 독서(Extrinsic Reading)가 필요하다

이 外部의 독서에는 첫째로 경험(Experience), 둘째로 다른 서적(Other books) 그리고 셋째로 活달한 토론(Live discussion)이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경험들을 많이 쌓아둘 사람일수록

책을 빨리 읽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Pre-reading으로 들어가 보면 다음과 같다.

① 題目·小題目·目次

題目 등을 보면 大體로 어떠한 內容이 쓰여져 있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러나 文學的文章인 경우, 題目으로부터 內容을 想定하는 것이 困難할 경우가 많으므로, 이 점은 注意하여야 한다.

副題·小題目도 역시 內容을 簡略하는데 有效하다. 또한 單行本의 경우에는 目次를 보면 大體의 內容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

② 序文, 跋文, 紹介, 結論等

이러한 것들도 역시 그 內容을 簡略하는데 도움을 준다. 많은 책들은 그 序文을 읽어보면 거기에서 取扱되어지고 있는 主題라든지 혹은 著者の 態度등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說明文, 論說文, 報告文, 記錄文등에서는 그 끝마리의 結論, 要約, 問題點, 希望事項등이 쓰여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③ 作者·年代

같은 著者の 책들을 여러권 읽고 있으면 著者と 親近感이 생기게 되고, 著者の 傾向, 思想, 生活態度, 文章스타일등도 알 수 있어 빨리 읽는데 도움을 준다.

④ 插圖·圖書

삽화는 登場人物, 話題가 되는 事物, 그 時代·場所등을 豫知하는데 도움을 준다. 地圖·圖表등도 內容을 豫見하는데 도움을 준다.

나. 훑어 읽기(Skimming)

이것을 달려 읽기라고도 할 수 있거니와 Pre-reading 다음에는 一步進하여 Skimming을 할 필요가 있다. 즉 讀書材를 훑어 읽어두는 것이 다음에 읽어 내려갈 때 빨리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쓰여져 있는 內容의 大體의 것을 안다는 점에서 有效한 것이다. 영어의 Skim이란 단어가 표현하는 것처럼 제비새가 湖水의 水面을 살짝 스치면서 날듯이, 읽을 때에도 그와 같이 페이지의 個所를 스치면서 읽어내려가며 大意를 簡略하는 速讀法이다. 따라서 一種의 概括作用인 것이다.

다. 集中 讀書(Concentration)

책을 읽는 데에는 정신이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精讀을 할 때나 速讀을 할 때나 마찬가지이다.

집중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에 주의하여야 한다.

첫째로 雜念을 불식하여야 한다. 書自書, 我自我格으로 책은 책이고 나는 책과 거리가 먼편 생각을 하고 있으면 萬事休矣인 것이다. 잡념을 불식하는 방법으로서는 독서환경을 정리하는 것도 한가지 方法이다. 예를 들어 책상위의 雜物이나 벽에 걸려진 카렌더의 美人畫등을 정리하는 일이 필요하다. 精神一倒면 何事不成인 것이다.

### 라. 비판적으로 읽기(Critical Reading)

훌륭한 讀者는 著者が 쓴 것을 단지 受動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能動的으로 읽어서 著者에게 挑戰하고 批判한다.

批判力을 양성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點에 留意하여야 한다.

- ㄱ. 자기 자신의 생각과 經驗과 비교하여 어떠한가.
- ㄴ. 著者에 偏見은 없는가.
- ㄷ. 著者의 材料의 選擇은 賢明하고 올바른가(引用등).
- ㄹ. 事實이 論理的으로 說明되어 있는가.
- ㅁ. 著者의 結論은 著者의 實際의 觀察에 근거하여 있는가.

### 마. 노트하기(Note-taking)

노우트를 組織的으로 하여야 하는데 그것을 하는데 注意點은 다음과 같다.

- ㄱ. 쓰여져 있는 내용으로 부터 重要한 것을 選出하여 메모한다.
- ㄴ. 記錄할 價値가 있는 것을 택한다.
- ㄷ. 著者의 생각을 組織的·立體的·有機的으로 메모할 것과, 자기 자신의 단어로써 正確하게 標記하여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기자가 한 메모라 하더라도 알아볼 수 없게 될 때가 있기 때문이다.

## B. 눈과 페이지와의 관계

눈과 페이지와의 관계서 본격적으로 速讀의 테크닉이 필요하게 된다. 그 테크닉으로서는 대개 다음과 같은 것들이 云論된다.

즉 句 읽기(Phrase Reading), 步調를 바르게 취하기(Pacing), 間行運動을 없애는 法, 數行을 한꺼번에 읽는 法, Indentation, 圓柱狀으로 읽기(Columnar Reading), 必要個所뿐만 읽는 法, Key Word Reading, 뛰엄·뛰엄 읽는 法등이다. 이들을 分說하면 다음과 같다.

### 가. 句 읽 기(Phrase Reading)

이것은 문자 그대로 句를 한 눈으로 내려가는 방법이다. 이를 발전시키면 이른바 공간 독서

(Space Reading)에 도달하게 된다.

#### 나. 步調를 바르게 取하는 方法(Pacing)

이것은 읽어 내려갈 때 步調를 조절하는 方法이다. 읽어 내려가는데 있어서는 이른바 필요 없는 退行(needless regressions)이 있다. 이런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잘 이해한 것이라고 되돌아가 읽게 되면 시간낭비인 것이다. 이러한 경향을 止揚하는 方法이 Pacing인 것이다.

#### 다. 間行運動을 없애는 方法

速讀의 技術로서 여러가지 方法이 생각되는데 그 하나의 方法으로서 間行運動을 하지 않고 독서하는 方法이다. 그래서 間行運動에 소비하는 時間을 절약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발같이 할 때 牛步型으로 읽어내려가는 것이다. 즉 문장의 第一行을 上으로부터 下로 읽어내려간 다음 第二行은 下로부터 上으로 읽어가는 方法이다.

#### 라. 數行을 한꺼번에 읽는 方法

이것은 文字 그대로 數行을 한꺼번에 읽어내려가는 方法이다. 速讀法의 한 方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 마. Indentation

이것은 페이지의 餘白에 정신을 팔지 말면서 읽어내려가는 方法이다. 통계에 의하면 20~30%의 시간을 餘白(margins)을 읽는데 소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Indentation의 方法을 이용하면 페이지의 上下左右部分을 割愛하면서 읽어내려가는 셈이 되는 것이다.

#### 바. 圓柱狀으로 읽는 方法(Columnar Reading)

이 方法은 페이지를 圓柱狀으로 압축하여 읽어 내려가는 方法이다.

#### 사. 必要個所분만을 읽는 方法

速讀의 要諦의 하나는 될 수 있으면 읽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必要個所분만을 읽는 것도 速讀法의 하나인 것이다.

그 方法을 分說하면 다음과 같다.

- ㄱ. 모르는 個所를 읽을 것.
- ㄴ. 읽고 싶은 個所를 읽을 것.
- ㄷ. 알고 싶은 個所를 읽을 것.
- ㄹ. 重要的 個所는 精讀할 것.
- ㅁ. 全体와의 關聯에서 읽을 것.

### 아. Key Word Reading

速讀法의 하나로서 이른바 중요한 단어(Key Word)를 읽어 내려가는 方法이 있다. Key Word란 하나의 文을 構成하고 있는 단어중, 그 文의 意味를 나타내는데 重要的 役割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Key Word를 간파하면 그 文의 意味를 대충 간파하게 된다.

### 자. 뛰엄 뛰엄 읽기

速讀의 要諦의 하나로서 뛰엄 뛰엄 읽기란 것이 있다.

論文 또는 書籍의 各章의 分析結果로부터 主意를 傳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곳이므로 다음과 같이 읽기를 권하고 있다.

ㄱ. 最初의 數段(2~5段階)을 完全히 읽는다.

ㄴ. 그 다음은 小題目과 各段의 一行분만을 읽는다.

ㄷ. 最後의 段(1~4段階)를 完全히 읽는다.

다음에 한 책의 書籍 全体를 읽을 경우인데 前述한 것을 擴大應用하면 된다.

ㄱ. 먼저 目次, 序文등을 읽는다.

ㄴ. 第一章과 最後의 章을 前述의 ㄱ, ㄴ, ㄷ에 따라서 읽는다.

ㄷ. 目次등을 參照하면서 中間의 章 가운데 要約이 있는 文章을 역시 前述의 ㄴ, ㄷ의 方法으로 읽는다.

## Ⅲ 맺 는 말

이상 速讀法의 要領에 관하여 略述하였거니와 문제는 이러한 速讀法을 자기의 것으로 할 수 있느냐에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이러한 速讀法은 특히 大學生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보아진다. 大學生들은 이전의 대학생들보다 더 많은 책을 읽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大學生時節에 速讀法을 體得하지 못하면 實社會에 나아가서 그것을 體得하기란 緣木求魚格으로 어려울 것이다.

大學生과 速讀法은 不可分의 관계에 있다. 大學生 時節에 이것을 몸에 배어놓으면 實社會에 나아가서 活用할 수 있으며 그 活用の 結果는 매우 현저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結論적으로 速讀法을 大學生들은 빨리 體得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아무리 強調하여도 지나치는 법은 없을 줄 안다.